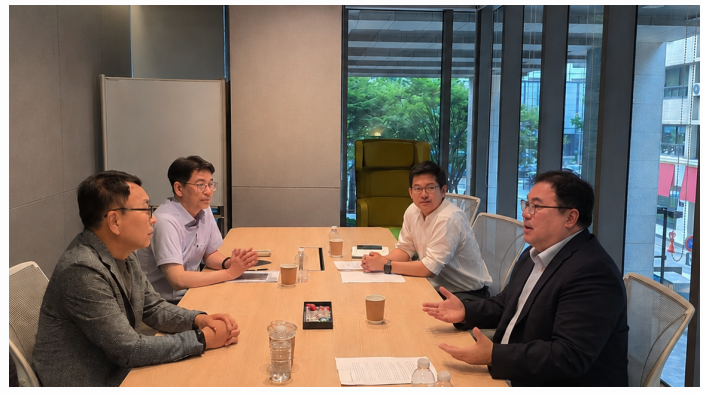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과 북한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미국-이란 전쟁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인식과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담은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북한의 대외전략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대담자의 동의를 얻어 주요 내용을 정리·수록한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2일(화), 16~18시, 스페이스에이드 CBD

사회
조동호(KDI)

대담
류현우(前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조동호: 오늘 류현우 대사대리님과 자리를 마련한 것은, '미국-이란 전쟁과 북한'을 주제로 북한 최고의 중동 전문가이셨던 대사대리님의 분석과 견해를 듣기 위함입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4월호에서는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이란 전쟁 전반과 그에 따른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대사대리님께서는 평양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하시고 시리아, 쿠웨이트 등 중동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아랍어를 전공으로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류현우: 평양외국어대학은 입학 당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희망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시 블록불가담운동(쁠럭불가담운동)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프랑스어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1지망은 프랑스어과, 2지망은 영어과를 썼고, 3지망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꼬부랑 문자가 신기하다는 생각에 장난삼아 아랍어과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줄이 없다 보니 3지망까지 밀려 아랍어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조동호: 운명적으로 아랍어를 하시게 된 셈이네요. 북한에서 외교관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입니까?

류현우: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무엇보다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회적 지위 면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고요. 또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인력들은 집세와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하지만,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은 국가로부터 월급 외에 주택·차량·유류비·통신비까지 지원받습니다. 월급 자체는 500~1,000달러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생활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외화벌이 종사자들처럼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조동호: 북한 외무성 내에서 중동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부서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순서가 될까요?

류현우: 북미국이 단연 1위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담당국, 세 번째가 러시아 담당국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다음이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담당국이었고, 현재는 아시아국이 북미・중국・러시아 다음 순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유럽국, 국제기구 담당국 순입니다.

"차관 유치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의 핵심 임무"

조동호: 걸프 지역의 유일한 북한대사관이었던 쿠웨이트 대사관이 중동에서 수행했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요?

류현우: 북한 외교에서는 지역별로 한두 개의 중점 국가를 선정합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와 이란, 걸프 지역에서는 쿠웨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 시에는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쿠웨이트의 경우 경제적 중요성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쿠웨이트에는 제3세계 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하는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기금(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 기금을 통해 평양시 오수정화 시설 공사와 평양–평성 고속도로 건설 등에 약 6,500만달러의 저리 차관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사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이 차관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 쿠웨이트 대사관은 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 등을 겸임하며, 이들 국가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조동호: 첫째는 쿠웨이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 둘째는 파견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군요. 혹시 과거 북한과 이란, 중동 지역 간의 비밀 거래나 무기 수출에서 교두보 역할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류현우: 제가 쿠웨이트에 근무할 당시에는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리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과 시리아는 군사협력이 매우 긴밀했기 때문에, 다양한 군사 관련

기관들이 현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광업개발총회사, 창광은행(단천상업은행), 군사고문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시리아에 방사포 공장이 있었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함흥에서 파견된 기술자 약 2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무기 관련하여 기술 지원이나 판매는 해당 기관들이 담당하고, 대사관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류현우: 대사관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경우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대사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대사는 자금 이동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동호: 실제 사업은 해당 기관들이 맡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만 대사관이 관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현재도 이란 현지나 헤즈볼라, 후티 등의 '저항의 축' 내부에 군사고문단이 남아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북한의 '땅굴 파기 기술'이 전수되었는지요?

류현우: 현재는 군사고문단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이 북한-헤즈볼라, 북한-하마스 연계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의 기본 외교 원칙 중 하나가 내정 불간섭입니다.

평양에는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계열의 정부를 가리킵니다. 반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와 대립하는 무장 세력이므로, 북한이 하마스를 인정하는 순간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 정부와는 별개의 무장 정치 세력입니다. 북한이 레바논 정부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헤즈볼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이 북한의 땅굴 기술을 하마스·헤즈볼라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동호: 중요한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현우: 다만, 땅굴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이란에 '시아 벨트(초승달 벨트)' 전략과 관련하여 약 2,500만달러를 받고 땅굴 설계와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탄즈나 이스파한 같은 지역의 지하 핵시설에도 북한의 땅굴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땅굴 관련 기술을 헤즈볼라나 하마스 측에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동호: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층은 이란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반대로 중동에 계시던 시절, 외교관 등 이란 측 인사를 접촉하면서 이란이 북한에 대해 가진 생각, 평가 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류현우: 최고 지도층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란을 두고 흔히 '깍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리아나 러시아・중국・쿠바 등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은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반면, 이란은 철저히 받은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고 무상 지원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중심에서 장사해 온 '페르시아 상인의 DNA'가 있다는 말도 종종 나왔습니다. 한편, 이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란 사람들은 북한을 상당히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낮춰 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동호: 외무성을 떠난 지는 꽤 되셨지만, 이번처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면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북한 외무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류현우: 저도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결국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하면서 사우디-이란 외교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불만이 있어도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기보다 대리 세력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외무성 역시 미국의 직접 타격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이란과 다르다고 판단했을 것”

조동호: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혹은 평양의 최고 지도부가 가장 먼저 느꼈을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류현우: 솔직히 말하면 “왜 저렇게 얻어맞고만 있을까, 한 번쯤 미군 기지라도 타격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이 우리는 때릴 수 없다’고 자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은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중국이라는 동맹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또한 러시아도 2024년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조약으로 자동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 난민 문제를 비롯한 막대한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국・한국・일본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평양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류현우: 공격받으면 당연히 맞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아직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이 우선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동호: 만약 이란이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면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류현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국 지상군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상군이 투입되면 보급로가 길어지고 장기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전의 늪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쉽게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미국에 더 부담스러운 것은 김정은 이후의 한반도일지도 모릅니다"

조동호: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 1월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보면서 평양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류현우: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마두로와 상황이 다릅니다. 마두로의 경우 제거 이후 대체 가능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2019년 하노이로 향하던 중 김정은이 기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CIA가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암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김정은 이후의 한반도가 오히려 미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동호: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란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류현우: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란 전쟁을 보며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당이 강조하는 군사제일주의 노선이 얼마나 정당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이 그런 방향으로 선전할 테니까요.

조동호: 이번 전쟁을 보면서 김정은은 핵 개발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외무성과 군부가 이번 전쟁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무성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군부는 핵 무력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류현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며, 외무성이든 군부든 그에 맞게 정책을 수립합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저것이 불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정책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정세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정책 건의에 해당하는 '대책적 의견'을 작성하는데,

이를 당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에 맞춥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외무성과 인민무력부가 함께 관련된 문제라면 문건에 '인민무력부와 몇 월 며칠 합의하였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부로 문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원할 것"

조동호: 이란도 북한처럼 핵 개발과 제재 완화를 두고 오랫동안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해왔습니다. 이란의 '협상 실패와 전쟁 돌입'이라는 결과가 북한의 대미 협상 노선에 어떤 교훈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협상을 최대한 잘 이끌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과 별개로 결국 전쟁 가능성도 있으니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일 듯합니다. 북한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까?

류현우: 북한은 결국 체제 유지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보다는 핵 군축 협상으로 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국방력을 강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무기 판매 대신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조동호: 학계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중동 지역에 상당한 양의 무기 판매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사대리님께서는 북한의 중동에 대한 무기 판매가 어느 정도 규모일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류현우: 2016~17년을 기점으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2017년 이후 북한의 무기 수출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청천강호

사건이나 제순호(지순호) 사건처럼 무기 운송·판매 시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 미국 정찰위성이 해주항과 송림항을 상시 관측하고, 선박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해당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기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다른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18년경부터 이란에 전문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당시 이란과 시리아에 나가 있던 북한 인력 상당수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동호: 직접 무기를 판매하는 대신, 기술을 전수해 주고 외화를 버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군요.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류현우: 이란과 시리아였습니다. 다만, 시리아는 정권 교체 이후 사실상 협력 기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란이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북한 기술자들이 항공편을 통해 이란을 오가며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1년 유엔 보고서에서도 북한 기술자들의 이란 파견 사실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기술자들도 북한에 들어와 드론 등의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호: 북한과 이란은 오랜 '반미(反美) 전선'의 혈맹이고, 2002년에는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 3개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지요.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의 화성 계열 미사일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류현우: 그 부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대거 이란에 파견되며 협력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사일 판매도 이루어져 북한은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군수공업부 산하 대외경제총국과 광업개발총국이 북한 내 최고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이란이 북한보다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백두산 엔진으로 대표되는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추진기관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북한은 파병, 무기 제공 등으로 밀접히 관여했는데,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는 북한의 개입이나 지원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요?

류현우: 북한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2024년에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조약은 한미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에 러시아와도 사실상의 동맹을 구축하여 외교·안보 영역을 넓히려는 북한의 주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푸틴도 1만 5,000명의 병력 파견은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실제 파병 역시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닌,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영토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 조약의 틀 안에서 국제법상 문제없이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군수 지원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에 파병할 경우, 병력 이동과 전략 물자 수송 등 현실적인 제약이 훨씬 큽니다.

"중국의 제재 강화가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조동호: 중국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아직도 예전처럼 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류현우: 북한은 중국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눈을 감아 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은 1,400km가 넘기 때문에 모든 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압록강 일대에서 밤에 불을 끄고 차량이나 물자가 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경 검문이 대폭 강화되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구에 사용되는 작은 금속 부품까지 문제 삼을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동호: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관계 개선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류현우: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자신들도 참여해 채택된 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김정은은 전승절 행사 참석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류현우: 그래도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면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1] 저는 이제 중국이 북미 회담 조율을 위해 나설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6자회담의 의장국이었던 중국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로 기운 북한,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시적 선택"

조동호: 현재 북러관계는 사상 최고라고 할 정도로 가깝고, 러시아 역시 이란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북-러-이란'의 반미 삼각 군사동맹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 중국이 제동을 걸거나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류현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것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국제법과 무역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북한에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국 사이에 화물열차가 오가지만,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물자를 싣고 들어가고 돌아올 때는 빈 열차로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이 거의 대부분이니, 중국도 공개적으로 북한 물자를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러시아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물론 안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도 큽니다.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월 1만톤 정도의 원유도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동호: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가 연간 약 50만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공급하는 양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

1) 대담 이후인 2026년 6월 8~9일,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평양을 국빈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방북이다.

류현우: 그렇지만 중국은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무상 지원의 성격이 강했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 핵실험을 계기로 조금씩 공급을 제한하다가 이후 유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50만톤이 들어오더라도 LPG는 전량 중국에 반환하고, 북한은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등 나머지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한 달에 1만톤 정도라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중 회담도 이루어지고,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 등을 보면, 중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상황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러시아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로부터는 중국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은 나토 쪽에 있고,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다만,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 보니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공백을 메우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동호: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한 달에 2천달러 정도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현우: 실제로는 그런 대가 지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병 자체가 북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러시아 역시 서방의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외화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원유 등 현물 형태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전사자 1인당 20만달러를 받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진위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전사자 가족에게는 현금으로 전달되기보다 평양 거주권이나 아파트 배정 등의 형태로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에서 핵 군축으로, 협상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동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손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게 된 셈이지요. 경제가 어려운 북한에서는 조속한 제재 완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활용할 유인이 있을 것이고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류현우: 저는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북한 역시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외화 수입원이 계속 줄어들면 제재의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자력갱생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활성화하고 투자도 유치하려면 결국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트럼프를 만나야 한다고 김정은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무렵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최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 핵 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미국 국무부 역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쪽으로 방향을 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특정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방식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호: 말씀을 정리하면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노이 회담의 재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이든 군축이든, 북한은 일정 부분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재 완화입니다. 김정은이 단순히 제재 완화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설령 트럼프가 제재 완화에 더해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도, 그 자금을 미국이 직접 부담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류현우: 저는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해제 자체가 북한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과의 교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북한도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핵은 완성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한가"

조동호: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매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남아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은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며 북한의 앞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류현우: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핵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핵도 완성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한가', '언제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외교관 시절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나 차관을 끌어오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야 외교관도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조동호: 이미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북한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핵 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던 병진노선은 사라지고 핵만 남은 것 아니냐는 불만 같은 것이 북한 지식인들 사이에 있을까요?

류현우: 그런 생각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국제 정세를 직접 접합니다. 그래서 핵을 계속 추구하면 경제발전이 더뎌진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따라서 필요한 억지력은 유지하되, 핵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은 양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관뿐 아니라 해외 경험이 있거나 국제 정세를 접할 수 있는 지식인층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이 제시하는 방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동호: 만약 대사대리님께서 지금도 쿠웨이트나 시리아 혹은 외무성 내부에 계셨다고 가정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전쟁과 관련해 보고서를 올리셔야 한다면, 마지막 정책 건의에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류현우: '미국의 패권주의가 도를 지나치는바, 우리는 앞으로도 핵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자립적 방위력을 지속 증강해야 한다'는 식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답이니까요.

"두 국가론은 유훈의 포기가 아닌, 시대적 맥락에 맞춘 정책 변화"

조동호: 인터뷰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줄곧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두 국가론이 제시되어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재국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류현우: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설명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원래 외교 현장에서도 그런 현실을 전제로 활동했고요. 조국 통일이나 반미 공동 투쟁 논리가 특정 시기에 선전용으로 강조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외교 기조는 아니었습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과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당시, 이것이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김일성의 주장은 국내 정치적 논리였다는 말씀이군요?

류현우: 두 국가론을 두고 '김일성의 유훈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유훈을 저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맥락에 맞게 정책과 노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 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김정일·김정은 시대에 핵을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조국 통일이 유훈이었지만, 지금은 남북이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살아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동호: 하지만 유훈 문제를 떠나서도 김정은 본인도 얼마 전까지는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류현우: 노동신문을 보면 '한국이 보수든 진보든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의 적대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한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취지에서 이를 헌법에도 명문화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의 종착점도 결국 통일일 수 있습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일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했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류현우: 저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지만 북한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남북이 각각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자는 방향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의 최종 목표도 결국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더라도,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최종 종착점이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조동호: 평화적 두 국가론의 종착점에 대한 견해 역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논의가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다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류현우 대사대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